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1/9~11/15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법정스님이세상에남긴맑고향기로운이야기:법정스님원적10주기추모특별판	법정/김계윤 그림	불교신문사
2	에리히프롬과불교(대원불교학술총서04)존재양식과깨달음	박찬국	운주사
3	죽음을철학하는시간(죽음명상)	이일야	불교신문사
4	성자와범부가함께읽는금강경	김원수 지음	청우당
5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1)육체의한계를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6	자애:성냄과여러위험에서자신과타인을보호하는법(법의향기다섯)	일창 담마간다 편역	불방일
7	샐러드가필요한모든순간나만의드레싱이빛나는순간(개정판)	지은경 지음	레시피팩토리
8	주경야선:가행정진으로재가자도성불할수있다	김원수	바른법연구원
9	스님의그림자:상담하는비구니의자기치유이야기	효록	운주사
10	눈으로듣고귀로읽는붓다의과학이야기(진화생물학과뇌과학,불교를만나다)	김성철 지음	참글세상

책세상

"내 안의 독 제거하면 여래장 만나"



여래장사상의 원전
이평래 역주 강설
민족사 펴냄
24,500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불교는 마음이 삶을 창조한다고 가르친다. 무신론인 불교는 신을 찾지 않는다. 오로지 나의 마음을 찾을 뿐이다. 삶의 주체가 마음이고 깨달음의 주체가 마음이라는 것이다. 곧 삶과 깨달음, 그리고 나와 마음은 별개의 존재가 아닌 하나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마음의 본성을 주제로 한 경전이 여래장 3부경(〈여래장경〉 〈부증불감경〉 〈승만경〉)이다.

여래장 사상은 인간은 본래 마음속에 여래가 될 가능성인 여래장(如來藏), 불성을 갖추고 있어서 모든 사람은 여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사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식론에서처럼 마음 작용에 관한 이론의 다양한 전개보다는 그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제일 중시하고 있다. 마음이 진여이고 여래장이며 그 사상을 건립하는 것이 여래장 3부경의 핵심사상이며 대승불교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다. 〈여래장경〉은 불교사에서 최초로 여래장이라는 용어를 창안해 부처님 가르침을 선창한 경전이다.

〈여래장경〉은 모든 중생이 번뇌 속에 뒤덮여 있지만 여래장을 갖고 있으므로 영원히 더럽게 물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껍질이 씌워져 있는 곡물이나 쓰레기더미에 파묻힌 진금(眞金)에 비유하며 번뇌의 누더기를 벗으면 깨끗한 여래장이 나온다고 말한다.

〈여래장경〉은 세존께서 성도하신 10년 뒤, 세존을 모시고 영취산에서 법회를 시작하는 광경으로 시작된다. 금강혜 보살이 묻고 세존이 여래장에 관해 답변하고 있다. 그리고 세존은 많은 보살과 대중에게 상서로운 기적을 시현하는 데 바로 이것이다. 연꽃의 꽃잎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화불(化佛)이 앉아계시는데, 연꽃은 순식간에 시들어 버리지만, 화불은 변함없이 그대로 앉아계시는 기적을 보여 그것을 증명하였다. 모든 사람의 안에는 법성 · 법계인 여래장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사실은 여래가 세상에 출현하든 출현하지 않든 관계없이 상주불변이라고 하였다.

〈부증불감경(不增不減經)〉은 한자로 불과 3,000자를 조금 넘는 아주 짧은 소부(小部)의 경전이지만, 여래장 사상사에 있어서는 참으로 중요하다.

〈여래장경〉이 단순하게 중생의 성불의 가능성을 마음속에서 발견하고 이것을 '여래장' 이라고 부른 것이라면 〈부증불감경〉은 여래장의 성질이나 번뇌와의 관계 등 이러한 문제들을 논의하고 교리적으로 체계화하여 발전시킨 것이다. 〈부증불감경〉은

마음본성 주제 경전, 여래장 3부경
마음에 불성 있고 마음이 곧 깨달음
모든 중생들 마음엔 '여래장'이 있다

여래장을 매개로 하여 중생과 법신을 일치시키고 있다. 미혹한 중생과 깨달음의 법신은 둘 다 함께 여래장을 본질로 하고 있으며, 법신의 자리에 서든 중생의 자리에 서든 어느 쪽이든 둘 다 함께 평등이라고 말한다. 중생 성불의 가능성을 마음속의 여래장에서 구하며 더 나아가 그 발현을 연설하고 그것을 근거로 중생 · 보살 · 여래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여래장경보다 상당히 진보한 것이라고 본다.

〈승만경〉의 원제목은 〈승만사자후일승대방편방광경〉이다. 제목에서도 엿볼 수 있듯 〈승만경〉은 승만 부인이 사자후로 최고의 진리인 일승 대방편의 가르침을 널리 펼친 경전, 여래장 사상을 이론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한 여래장 3부경 중 으뜸 경전이다.

〈유마힐소설경〉이 청신사인 위말라끼르띠 거사가 진리를 진술한 것이라면, 이 경전은 청신녀인 슈리말라 왕비가 거룩하신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아서 진리를 진술한 것이다. 21세기인 오늘날에도 인도는 남존여비 사상이 팽배한데, 2600년 전 인도에서 재가 여성 불자가 부처님을 대신하여 진리를 설했다는 것부터 대단히 혁신적인 경전이라 할 수 있다. 슈리말라 왕비가 부처님으로부터 수기를 받고, 먼저 10가지 서원을 세우고, 또 이 10가지 발원을 3대원으로 함축하여 실천할 것을 부처님께 맹세하는 것 또한 〈승만경〉의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미 여래장을 갖추고 있으니 실천을 통해 여래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우고 있는 것이다.

이 책의 역주 · 강설자 이평래 충남대 명예교수는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오뉴월 떫은 땡감이 익어서 동지섣달 아주 단 홍시가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홍시가 되기까지의 과정과 전미개오(轉迷開悟, 미혹에서 깨달음으로) · 전식득지(轉識得智, 분별심에서 반야지혜로)까지의 과정은 같은 길을 걷습니다. 땡감의 떫은맛이 제거되면 그냥 그대로 100% 아주 단 홍시가 되듯, 범부가 마음을 닦아 3독을 제거하면 그냥 그대로 해탈자라는 것입니다"라고 역설한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살이는 녹록지 않다. 고달픈 삶의 현장에서 위로받기 위해 신(神)이나 불보살(佛菩薩)에게 의지하며 기도하기도 하고 스스로 깨달음을 구하기도 한다. 불교는 마음의 종교, 깨달음의 종교이다. 불교 경전 특히 여래장 3부 경전에서는 우리 모두에게 여래장, 즉 깨달음을 얻어 여래, 부처가 될 수 있는 자질, 바탕, 가능성이 깃들어 있음을 강조한다. 알아차리지 못할 뿐 이미 깨달은 존재라는 것이다. 일체중생은 여래(부처)가 될 수 있는 존재,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존재, 깨달은 이가 될 수 있는 바탕을 간직하고 있는 존재라는 학설로, 2천 년 불교 사상사의 획기적인 발견이라고 할 수 있다. 불교에서는 마음이 삶을 창조한다고 한다. 이 책은 내 마음의 여래장을 만나고 싶은 사람, 새로운 희망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좋은 지침서가 될 것이다.

열반송에 주목하는 이유는?



죽음을 철학하는 시간
이일야 지음
불교신문사 펴냄
1만6천원

선불교를 공부하는 이들은 선사들이 남긴 열반송(涅槃頌)을 접하게 된다. 열반송은 '죽음을 노래하는 한 편의 시' 라고 할 수 있다. 삶을 마감하면서 살아있는 이들에게 남긴 마지막 언어인 셈이다. 그 속에는 한 인물의 전체 삶이 압축되어 있어서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가늠해볼 수 있다. 우리가 열반송에 주목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인간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살 것인가?' 에 대한 해답을 모색해 볼 수 있다. 모두가 수긍하는 완벽한 정답은 없겠지만, 삶과 죽음에 대한 사유를 통해 나만의 답은 찾을 수 있다. 자신만의 답을 찾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이 질적으로 같을 수는 없다. 그 답을 찾은 사람은 사는 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대로 사는 주체적인 삶을 펼칠 수 있다. 우리가 삶과 죽음을 성찰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2021년 한해 동안 〈불교신문〉에 '죽음을 철학하는 시간' 을 연재한 이일야 전북불교대학장이 중국과 한국의 선지식들의 삶과 열반송을 분석한 글들을 수정, 보완해 〈죽음을 철학하는 시간〉(불교신문사)을 출간했다.

이 책에는 보리달마, 육조혜능 선사를 비롯해 덕산선감, 포대화상, 원오극근, 대혜종고, 굉지정각, 남전보원, 임제의현, 동산양개, 대각의천, 보조지눌, 진각혜심, 태고보우, 경허성우, 효봉학눌 등 30명의 한국과 중국 선지식들의 삶과 죽음에 대한 일화와 해설을 담고 있다.

저자 이일야씨는 불교신문에 연재를 하면서 독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산속 토굴에서 수행 중인 80살 넘은 어느 스님은 신문을 보고 직접 전화를 주기도 했는데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일야 선생을 통해 이런 글을 읽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소감을 전해 주었다"고 했다. 교도소에 수감 중인 어느 수인도 편지를 보내왔다. "이 글을 읽고 수감 생활 하는 동안 불교공부와 수행을 열심히 하겠다는 서원을 세우고 정진하고 있다"고 했다. 저자는 '선사들은 왜 그리도 멋지게 가셨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는데 이유는 단순했다. 모두 멋지게 살았기 때문에 삶을 멋지게 마감할 수 있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선지식들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도 '당신은 그들처럼 갈 수 있을까' 라는 화두를 던진다. 이 책을 부제목에 달린 '죽음 명상' 이라는 글귀는 죽음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해 보라는 의미를 부여한다.

저자는 삶을 멋지게 마감하는 죽음과 맞닥뜨리기 위해서는 '잘 살아야 한다' 고 설파한다. 이 책에 소개된 선사들처럼 살 수는 없겠지만, 어떤 것이 잘 사는 길인지 끊임없이 성찰하고 실천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상서 잘못했을 때는 참회와 발원을 하면서 그들을 조금이라도 닮도록 해야겠다고 다짐하며 살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대혜종고 선사처럼 열반송도 집착이라 생각해서 게송을 남기지 않은 부분도 다루며 "대혜종고 선사는 비록 제자들의 성화에 못 이겨 게송을 남겼지만, 열반송이 없으면 죽지도 못하느냐는 일갈을 하였다. 요즘말로 쿨하게 고요 속으로 떠나고자 했던 것" 이라고 분석했다.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고 싶었는데, 어쩌면 하나라도 더 남겨야 한다는 우리 중생들의 욕심을 경책한 점도 설명하고 있다. 저자 이일야 씨는 "이 한 권의 책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열반송, 한 인물 전체 삶이 압축돼 있어
중국과 한국 선지식 열반송 분석해 묶어

고민하는 이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우리도 붓다처럼 선서(善逝), 그러니까 참으로 잘 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책을 쓴 이일야 씨의 본명은 이창구이며, 일야(一也)는 법명이자 필명이다. 전북대 철학과에서 학부와 석, 박사과정을 마쳤다. 전북대와 전주교육대, 송광사승가대학 등에서 철학과 종교학, 동양사상 등을 강의했으며 보조사상연구원 연구위원을 지냈다. 현재 전북불교대학 학장과 (사)부처님세상 이사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아홉 개의 산문이 열리다〉(13회 불교출판문화상 대상)와 〈동화가 있는 철학 서재〉 (2020 세종도서), 〈불교에 대해 꼭 알아야 할 100가지〉 〈안다는 것, 산다는 것〉 〈불교란 무엇인가 불교란 무엇이 아닌가〉 〈불교학의 해석과 실천〉 (공저) 등이 있고, 〈Hegel의 중국관에 대한 비판적 고찰〉 〈나옹선의 실천체계〉 〈진심과 오수의 구조〉 〈조선 중기 보조선의 영향〉 등을 비롯한 다수의 논문이 있다. 불교의 외연을 넓혀 이를 종교학이나 철학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하는 데 관심을 갖고 연구 및 저술에 집중하고 있다.

김주일 기자

생활 불교 · 실천 불교 · 효행 불교

문화체육관광부 법인 인가 종단 사단법인 한국생활불교조계종

종정대행·총무원장 석도선 고 문 석암도

승정원
승정원장 석벽봉

원로원
원로원고문 석법령 위 원 석일우, 석도명, 석청산, 석체법, 석일두, 석혜천, 석혜암, 석진공

총무원
총무원장 석도선 / 교육원장 석동은 / 기획원장 석담허 / 법계고시위원장 석일두
호법원장 석종허 / 의전원장 석법도 / 어산장 석도암 / 감찰원장 석원허
비구니회장 석경호
부원장 석대공 / 총무부장 석성덕 / 감찰부장 석성현 / 조사부장 석성도
수행부장 석보각 / 사회부장 석자광 / 사서부장 석성우 / 조직부장 석성각
종무부장 석법민 / 문화부장 석성원 / 포교부장 석보현 / 연수부장 석원희
총무국장 석성민 / 지원국장 석해인 / 봉사국장 석성운 / 포교국장 석혜진
포교국장 석법정 / 포교국장 석성원 / 의전국장 석균중 / 수행국장 석성오
종무국장 석성안 / 문화국장 석원종 / 의식국장 석성혜 / 사서국장 석성

비구니회
부회장 석효성 / 부장 석지현 / 국장 석충효

종무원
김해중앙종무원장 석천각 / 칠곡중앙종무원장 석혜천 / 부천중앙종무원장 석원해 / 충북중앙종무원장 석선학
성주중앙종무원장 석홍재 / 영주중앙종무원장 석문교 / 속초중앙종무원장 석태성 / 영천중앙종무원장 석도명
포항중앙종무원장 석체법 / 천안중앙종무원장 석함월 / 시흥중앙종무원장 석지일 / 경남중앙종무원장 석일현
태백중앙종무원장 석일현 / 창원중앙종무원장 석청암 / 대구중앙종무원장 석성담 / 제천중앙종무원장 석진공
제주중앙종무원장 석의공 / 예천중앙종무원장 석명허 / 강릉중앙종무원장 석성만

법인 임원
이사장 도선 이 사 체법 일두 성만 성우 감 사 성덕 성민
운영이사 학산 성원 일현 도명 청암 혜천 의공

법률자문위원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1 교보생명 16층 / 법무법인 한결 대표변호사 : 이경우

사단법인 생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석도선

종립미래로봉사회
회 장 학 산 (이종길)
부회장 진불심 (이순임)
총 무 대각심 (김경숙)
임 원 혜명심 (박현숙)
임 원 보덕심 (박경남)

종립종합예술원
원 장 묘 각 (이재인)
부원장 혜 정 (이영숙)
국 장 불심화 (정형숙)
무 용 무애심 (박순애)
연 출 원각심 (도지연)

법사승단임원
법사고문 도혜 / 홍보부장 원명 / 구미부장 혜진
울산원장 법광 / 부산부장 혜성 / 대구부장 혜련
종무원장 성종 / 경기부장 자운 / 청주부장 혜원
법사원장 목암 / 전남부장 혜명 / 충북부장 상학
경남국장 성광 / 포교국장 청운 / 삼척국장 정허
사업국장 종현 / 통영국장 덕인 / 영천국장 원명
포교국장 덕운 / 포교국장 혜림 / 통역국장 정연
종무국장 도연 / 봉화국장 혜정 / 포교국장 혜경
서울국장 명덕 / 화순국장 보정

종도 입종을 환영합니다

총본산 경북 영양군 수비면 절터길 54-39, 전화 054)682-5808 / 팩스 054)682-9848 총무원 서울시 은평구 증산서길 91 2층, 전화 02)303-5612